



▶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 의 일디코 감독

## “여배우 캐스팅에 6개월 이상 걸렸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이 배일을 벗었다.

영화제 개막식 전 진행된 개막작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는 일디코 엔에디 감독의 작품으로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운 여자와 모든 것이 익숙하고 권태로운 남자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과정을 다룬 내용의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감독은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이다. 헝가리라는 먼 곳에서 온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영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들을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는 개인의 감성이 달라도 무의식의 세계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한 심리학자 융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면서 “살아온 배경과 문화·리듬이 다르고 분리돼 있는 세상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배우들의 연기는 영화의 핵심 여주인공 역 담당 알렉산드라 외향적이고 자기주장 확실해

작품에서 사슴을 택한 이유는 우아한 느낌 주고 싶어서”

감독은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이다. 헝가리라는 먼 곳에서 온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영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들을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감독은 “배우들의 연기는 영화의 핵심이다. 여주인공을 찾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배우 알렉산드라는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의 내성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외향적이고, 자기주장이 확실한 여성”이라면서 “그녀의 무표정한 모습은 영화의 많은 것을 담아 낸다”고 했다.

감독은 “한국에 온 것이 처음이다. 헝가리라는 먼 곳에서 온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영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들을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는 개인의 감성이 달라도 무의식의 세계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한 심리학자 융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면서 “살아온 배경과 문화·리듬이 다르고 분리돼 있는 세상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또 영화에서는 사슴이 등장하는데, 이는 주인공들이 꾸는 꿈의 모습이다.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사슴을 택한 이유에 대해 감독은 “우아하고, 자유로운 느낌 때문이었다. 영화에서는 가족의 도살이 그려지는데 소, 닭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호러적인 느낌이 강조될 것 같아 자기만의 삶을 우아하게 살아가는 사슴이 제격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충직 집행위원장은 “감독의 아들과 여자친구가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전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 감독이 이들에게 전주에서 초청한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무척 좋아해 개막작 섭외가 빠르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막작은 오는 28일, 내달 4일에도 영화제를 통해 상영된다. 상영 때에는 모두 감독이 참여하는 GV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일디코 엔에디 감독은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18th

### 주요 극장마다 PC존 설치 등 관객 서비스 확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영화제를 즐기기 온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공개했다.

지난 제17회부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객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메인 상영관인 CGV전주고사를 비롯한 주요 극장마다 관객들을 위한 PC존을 설치한다.

또한 볼품보관소를 운영하고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시간 영화를 보는 영화제 관람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했다. 올해부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예매도 진행하고 있으며, 예매 후 티켓 발급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도 상영관에 입장 가능하다. 그리고 각 극장마다 관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주 라운지 및 남부시장 청년라운지(청년회관)에도 휴대폰 충전 서비스와 관객 쉼터를 제공한다. 전주 라운지 내에 있는 활력충전소 부스에서 보드게임, 컬러링 엽서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푸드 부스를 운영하여 관객들에게 먹는 즐거움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새롭게 단장한 '전주 돌'을 찾는 관객에게 선착순 음료도 증정한다.

영화 축제의 분위기를 위하여 영화의 거리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컬러링 우체국, 영화 스티커를 이용한 포토존과 영화 주인공들로 코스프레한 지프지기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100 Films, 100 Posters'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봄의 절정에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봄의 향연에 질세라 전주국제영화제도 다채로운 시각의 작품들을 마련하고 영화제가 갖는 존재의 의미를 한껏 발산한다.

정윤석 감독의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압박을 조롱하는 반역적 펑크 밴드 '밤섬해적단'의 편력을 따라가는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작품은 한계가 없는 표현의 해방구를 지향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올해 기조와 더 없이 잘 어울린다.

또 고부간의 갈등을 역동적으로 풀어내는 <B급 머니>, 부동산 자본주의 환부를 자기 가족사를 통해 해부하는 <버블 패밀리>,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의 갈등을 일상에 밀착한 카메라로 생생히 보여주는 <파란비하교>, 국정교과서 문제를 국내의 정치지형 역사를 분석하며 접근하는 백승우의 <국정교과서>,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당 최초로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며 정계에 파란을 일으킨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을 담은 <노무현입니다>, 한 노인과 부부를 취재하며 열혈 박사모 회원의 멘탈리터를 해부하는 가운데 박근혜는 신화가 어떻게 성립되고 무너지는지를 질문하



▶ '국정교과서'

### ▶ 영화제 프로그램, 존재 의미 한껏 발산

## 표현의 한계를 깨다

펑크락 밴드의 편력 따라가는 다큐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부터 '국정교과서' · '미스 프레지던트' 등 사회적 메시지 담은 작품 선보여

는 김재환의 <미스 프레지던트>는 다양성의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다.

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마켓(JPM)에서 극영화 피칭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김양희 감독의 <시인의 사랑>은 예술의 초월성과 삶의 범속성을 어느 시인 부부의 일상적 삶에 극적 대비로 녹인 작품으로 '아름다움'의 가치를 묻는다. 시대극인 동시에 시대의 초상이었던 <네루다>는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시인 네루다의 과거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데뷔작 <철원기행>으로 한국적 로드무비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재환의 두 번째 영화 <초행>은 불안한 가족 서사를 풍경의 상처에 각인시켜 승화시킬 영화언어의 잠재력에 많은 기대를 걸게 하는 작품이

다.

<유령의 도시>는 시리아를 점령한 IS의 탄압에 맞서 '항거'의 양식으로 저널리즘을 택한 지하 저널리스트들의 투쟁담이다. 부르주아와 기독교를 향한 반역의 에너지를 품은 영화 <영령을 하려던 삶>의 절반은 무덤에 묻혀 버렸다'는 전 지구적인 보수화의 흐름에 저항하려는 정치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새해를 맞은 가족의 일상을 관찰한 완만한 리듬의 다큐멘터리 <새로운 해>는 치열한 속도전의 시대를 역행하는 '슬로우 무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1990년 데뷔한 포크 그룹 '16년 차이'의 현재를 그린 <홀로그램 유니버스>는 시간의 퇴색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의 카페, 하나의 테이블에서 하루 동안 펼쳐지는 네 커플의 이야기를 그린 김중관 감독의 <더 테이블>은 지금을 살아가는 여자들의 모습이 모자이크처럼 드러난다.

어린이날에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낮과 밤에 상영이 되는데, <패트와 매트>는 어린이날 관객들을 위한 특별 무료상영으로 선을 보이며, 밤에는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명화 <정글북> 극장버전이 공개된다.

/정해은 기자



### ▶ 영화제가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 작가와 만남부터 가벼운 수다까지

'미스터 클래스' 등 이벤트 공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는 클래스·전시·무대인사 등의 프로그램 이벤트를 공개했다. 일정은 28일부터 5월 6일까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영화적 성취를 이루고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 작가와의 만남으로 꾸며지는 <미스터 클래스>에는 송길한 작가, 보리스 레만, 마이클 윈터버텀,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이 함께 한다.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 이후 90분간 진행된다.

영화를 통한 영화의 이해를 시도하는 <시네마탈로지 클래스>는 극장에서 영화상영 이후 영화를 만든 감독 혹은 해당 작품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60분간 강연을 펼친다. 영화는 '켄 로치의 삶과 영화' '프리츠 랑' '시네마 노보' '시네마 퓨처' '카를로 디 팔마의 영화 세계' '토니 콘래드' '매니페스토' '익스페리멘탈' 등이 상영된다.

또한 작년에 2회 차로 운영했던 <시네마 클래스>를 올해는 4회 차로 편성,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색보정·사운드 작업을 통해 복원된 '비구니'의 제작과정 복원 스토리를 필두로 알렉세이 게르만의 웅대해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 '신이 되기는 어렵다', 일디코 엔에디 감독의 18년 만의 역작인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재평가를 시도하는 '이수리'까지 4가지의 클래스가 마련된다.

영화인들의 현장경험을 소규모 단위로 가까이서 듣는 가벼운 영화 수다 <토크 클래스>는 고사동 카페 하루일기에서 진행된다. 영화 관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까이에서 현직 영화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올해 영화제가 준비한 단 한 번의 특별 포럼은 스페셜 포커스 <모던 이탈리아 시네마: 재생의 기운>에 포함된 9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영화 전문가와 한창호 평론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30일 오후 2시 '더 챌린저' 상영 후 포럼이 시작된다.

전주 라운지 내 토크스테이지에서 봄날을 만끽하면서 감독과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시네마, 담(談)>은 4월 28일 '열다섯의 순수' '천화', 29일 '아수라', 30일 '시인의 사랑' '초행' '리베라시옹 데이', 5월 5일 '로스트 인 파리' 등 4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됐다.

/정해은 기자



'유령의 도시'



'미스 프레지던트'